하나님처럼 억울해 하자

(에스겔 18:1~32)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억울해 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처럼 억울해 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죗값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9절에서는 이에 대한 예가 십계명을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봐서 아들을 용서해주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악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처럼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도 마찬가지로 불에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에 타는 것 같은 가장 대표적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 없이 부당한 손해나 상실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이룬 성취나 업적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마음에서 억울함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간교한 거짓 고발로 인해서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만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몇 십 년씩 수감되었다가 출옥한 뒤에야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들이 공산당으로 몰려서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8사태 때에 바깥에서 날아온 총알에 의해 자녀를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에 억울함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억울함의 빈도수를 줄여나갈 때에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억울함의 문제는 결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되기까지 마음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쁨도 맛 볼 수 없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는 폐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단을 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해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도 억울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선민이라면 하나님처럼 억울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리지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와서 어려운 처치에서 살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죗값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자꾸 고생을 하고 있는 선민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니 억울함을 느끼고 반발했습니다. 속담대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 바람에 내 이도 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조상들이 범한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아버지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가족들은 살인자의 집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친척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자녀들은 취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던 당사자들은 고국에서 살다가 죽었고 그들이 지은 죗값을 무고한 청년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년들의 입장에서도 조상들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평생

우상숭배를 했어도 고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데, 자신들은 묻힐 자리도 없는 이국땅에 끌려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더 크게 느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지은 죄가 없이 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은 이런 심정으로 포로로 잡혀와 어려운 삶의 형편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은 노예로써 최하층의 삶입니다. 본래부터 노예였던 자들과 다른 점은 완전히 낯선 곳에서 새 터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민들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이 전혀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 더욱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무정하심과 불공평하심에 대한 억울함이 선민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선민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몸이 아파서 가눌 수 없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책상에 끌어다놓는 것과 같이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억울함에 대해 동정하거나 공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은, 로마서 1장 17절의 “…기록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라타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올라탈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계명도 올라타야만 합니다. 천국발 이땅행 열차와도 같기 때문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합당한 정류장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문자로 보이는 율법과 계명은 내 눈 앞을 달리고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중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율법과 계명이라는 열차가 출발하는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천국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도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땅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낸 후에 율법과 계명의 열차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육체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억울한 입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면 그 억울함도 해소될 것

임을 아셨기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땅에 주저앉아 그저 억울해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으니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땅에 주저앉아 억울해하고 있으니 오히려 억울해하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선민들은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이유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을 하늘로 보낼 때에 율법과 계명도 지켜지며 억울함도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천국과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기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18 때에 날아온 총알에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민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요구하셨듯이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하늘로 보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민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을 땅에 붙여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민으로써 마음을 하늘로 보낼 것인지, 선민임을 포기하고 자녀가 죽은 것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죽은 자식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운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선민은 또 하나의 억울함을 겪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마음 놓고 억울해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이라면 몸이 상할 정도로 억울해 해도 됩니다. 억울해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감정을 삭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해주셨기 때문에 억울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셔서 도망간 친구를 잡게 해주실까요? 그런 선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죽고 마음을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든지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마음은 하늘로 올려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땅에서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몰아치시면서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쏜 사람이 누구인지 사기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의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다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갖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배부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잃은 것 같을지라도 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기를 쳐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배설물을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으로 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한다고 억울해하던 선민들을 율법과 계명으로 몰아치시면서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훔쳐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자 죽는 것조차 억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억울하게 여겼다면 결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땅에서 억울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지만 마음이 하늘을 가지게 되면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일수록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에 유리하다고 보십니다. 땅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도 만족도 없는 땅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하늘로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한 마디도 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선민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말로 억울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선민들은 고국에 있을 때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마음으로는 풍요와 다산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사십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가나안 땅을 선민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억울함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민의 마음에서 천국과 하나님이 상실되는 것을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돈을 잃으면 억울해하면서도 하나님 잃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안 좋은 댓글이 달려도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져하면서, 세상을 마음에 담는 바람에 천국을 잃고 하나님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억울하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마음이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기는커녕 세상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겠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선민이 없으니 하나님이 억울해하실 만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해서 행복해합니다. 이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예배당을 지었다고 좋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써 행하신 것뿐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서울대학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세상을 담고 기뻐하거나 억울해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쳤음을 억울해하지 않으니 이러한 선민을 택하신 하나님이야 말로 억울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억울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분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런 시간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잃는 억울한 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십자가 생활화는 이루어집니다. 꼭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에만 마음에 자녀를 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뻐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잃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억울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훌륭한 자녀를 주셨다면 선민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친 선민들에 대해 하나님이 억울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억울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갖고 싶은 것이 없으니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 삶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진 그 일을 붙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나도 억울하고 하나님도 억울해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억울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억울한 것임을 아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땅에 묶이는 마음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기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살기등등한 사울의 마음에 금이 가서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 땅의 일을 억울해하지 않는 억울함이 선민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땅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겪든지 우리의 마음만은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말끔히 사라지는 청아하고 유쾌한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선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체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하지 못하는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